

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체계 조기 가동, '인명피해 제로화'에 총력

-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'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' 1차 회의 개최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오늘(3일) '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' 1차 회의를 개최하고, 태풍·호우 등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.
- 이번 협의체(TF)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단장으로,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5개 중앙행정기관, 17개 광역 지방정부 및 22개 공공기관이 참여*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간다.
 - * 중앙행정기관(실국장급): 국조실, 과기정통·교육·국방·행안·문체·농식품·산업·복지·기후·고용·성평등·국토·해수·중기부, 경찰·소방·국가유산·농진·산림·질병·기상·해경·새만금청, 방미통위 / 광역지방정부(부단체장) / 공공기관(처장급) : 한국수자원·수력원자력·농어촌공사·국립공원공단 등
- 올해에는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'인명피해 제로화'를 목표로 협의체 운영을 예년보다 앞당겨 시작하고(4월 중순 → 초), 본격적인 우기 전인 5월 말까지 기관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.
- 특히, 최근 10년간 인명피해 발생 현황과 재난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사항을 분석해 선정한 중점 추진과제*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.
 - * ▲ 위험상황 인지 및 신속한 대국민 정보 전달체계 강화 ▲ 취약계층 보호 및 주민 대피 지원 체계 구축 ▲ 위험지역 발굴 확대 및 집중 관리 ▲ 빗물받이 및 하천·계곡 불법 시설물 점검·정비 ▲ 주민 참여 현장 대피훈련 강화 등
- 한편, 행정안전부는 “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”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, 지난 3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67억 원을 선제적으로 교부해 지방정부의 재난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.

□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”정부는 올여름 태풍·호우 등으로 인한 ‘인명피해 제로화’를 목표로, 기관 간 협력체계를 한발 앞서 가동하여 안전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“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신일철 (044-205-5230)
		담당자	사무관	전혜숙 (044-205-5231)

